

세종-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사고대응(2보)

-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5일(화) 09:49분경 세종-안성 고속도로 9공구(천안시 서북구 입장면, 경기 안성시 서운면 경계)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15시경 사고현장에서 관계기관(소방청, 한국도로공사 등)으로부터 사고수습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상황을 점검 하였다.
- 박 장관은 “연말부터 연이은 안전사고로 인해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며, 소방청, 경찰청, 지자체,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협업하여 조속히 사고를 수습하겠다.”면서
- “사고수습뿐만 아니라 유가족분들의 말씀에도 귀 기울이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도 배치하겠다.”고 말했다.

< 사고현장 개요 >

- (사고지)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350-6,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264-1 경계
- (공사명)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-안성간 건설공사 제9공구
- (발주기관/시공사/하도급사/건설사업관리) 한국도로공사 / 현대엔지니어링 / 장현산업 / 발주청
- (총사업비/사업기간/공정률) 1,925억원/’19~’26/63%

- 국토교통부는 25일 12:00부로 사고대책본부를 가동 중으로, 15시 현재 해당 사고 수습상황은 다음과 같다.
- (구조현황) 작업자 4명 사망(내국 2, 외국 2), 6명 부상(내국 5명, 외국 1명)
* (사망) 안성의료원 3, 굿모닝 1 / (부상) 단국대 2, 아주대 3, 한림대 1
- (사고경위) 고속도로 거더 설치 장비(런칭장비)가 거더 설치 후 철수 과정에서 넘어감 → 거더 설치 등 현장 작업자 10명 피해발생
- (현장 사고대응) 소방, 경찰, 한국도로공사,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소통체계 구축 및 대응 중
- (우회도로) 사고발생 즉시 고속도로 VMS(Variable Message Sign)와 카카오네비 등 네비게이션을 통해 대체 우회도로 안내 중

담당 부서	사고대책본부	책임자	과 장	오수영 (044-201-3888)
			사무관	김영수 (044-201-3889)
			사무관	최민중 (044-201-3891)

대한민국
지책브리핑



참고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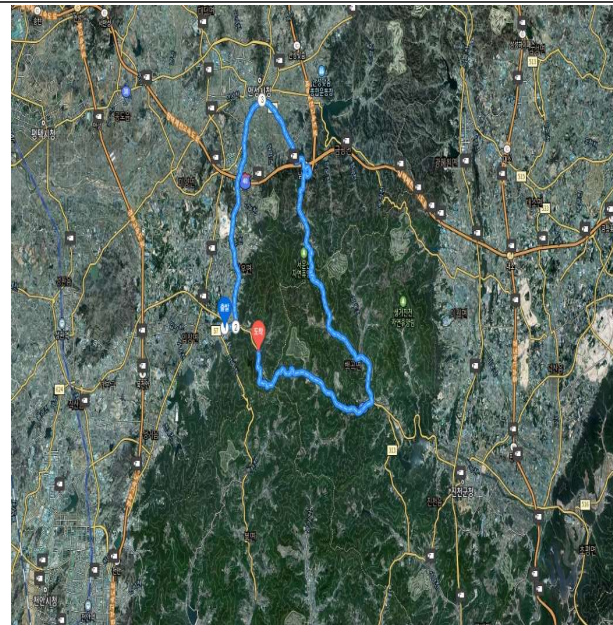
사고현장 사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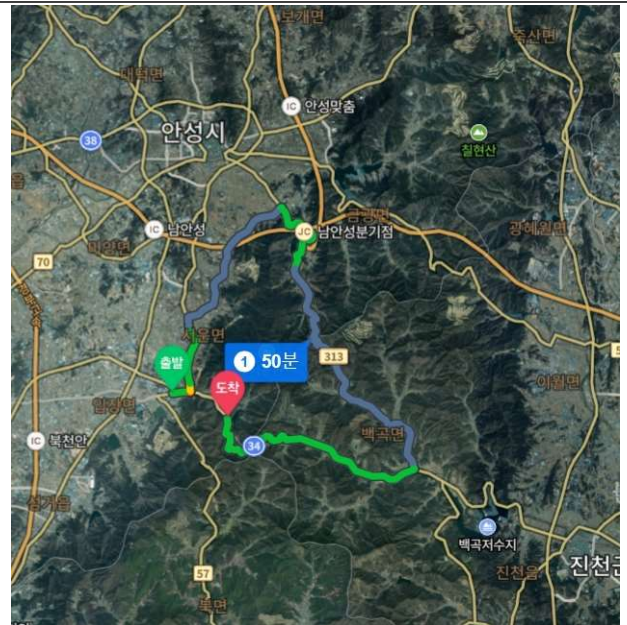
참고2

대체우회도로 안내

- 우회도로 (국지도 57, 지방도 325 안내) : 네이버 카카오네비 안내 중



카카오



네이버

- VMS 표출문구

- (표출대상) 사고지 인근 20km 반경 25개소 전체
- (표출문구)

입장면 인근 고속도로 붕괴사고
국도 34호선 인근 지방도 우회

